

# IRAQ 戰爭과 敎訓

## - 이라크 自由作戰을 중심으로 -

### 목 차

- I. 序 論
- II. IRAQ 國家 略史
- III. 戰爭 背景 및 意圖
- IV. 聯合軍과 이라크軍의 軍事力 및  
軍事戰略 比較
- V. 作戰 計劃 및 經過
- VI. 結果 및 敎訓



대령 황 성 철  
(군사연구실 전사연구과장)

## I. 序 論

이라크는 문명의 발상지로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국토 중심으로 흐르고 있고 또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가 있었던 유적지로도 유명하며 농업은 건조기후로 인해 경작률이 약 12%에 불과하나 여타 중동국가에 비해 비옥한 땅을 보유하고 있다. 감방에서 채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담 후세인은 1968년 군인 주도하 「바트당」의 쿠데타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1979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일인 독재 유지 대통령으로서 군 최고 사령관, 수상직, 집권 바트당 서기장을 겸임하면서 전국에 40여개의 호화 궁전을 짓고 독재 정치를 한 결과 전 국민의 문맹률이 80%에 이르고 도시를 벗어나면 지붕이 없는 집에 사는 주민과 헐벗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주민이 허다하고 어린이들은 신발 없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 풍경이 쉽게 목격되는 것은 석유 보유 세계 2위국 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필자는 2004년 12월 중순경 약 열흘간 자이툰 부대 전훈 분석반 지도 방문차 쿠웨이트 주둔 후방 지원대(캠프 버지니아)를 거쳐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사단지역과 바그다드에 머물면서 실제 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9·11 테러에 대응한 「테러와의 전쟁」선포이후 지난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자유 작전」을 시작하여 결정적인 목표인 후세인 정권 제거 및 바그다드를 장악함으로써 전쟁 개시 43일 만인 2003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링컨 호에서 이라크 자유 작전 종전(終戰)을 선언함으로써 전쟁은 끝이 났다.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동맹국(29개국) 16만 6천여 명과 함께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2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평가는 분야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브루킹스 연구소가 본 이라크전<sup>1)</sup>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정치 분야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동 민주화 구상’이 합격점을 받고 있다. 2005년 1월말 자유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헌의회가 3월 16일 개원했고 바트당 독재에서 200여개에 달하는 정당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했다. 또한 인구의 60%를 차지하면서도 수십년간 소수 수니파 독제에 시달리던 시아파가 다수를 대표하는 정권을 출범할 예정이다. 탄압과 학살에 시달리던 소수민족 쿠르드족도 자치권을 완전 보장받을 분위기다.

지금 이라크에서는 동맹국들의 전후(戰後) 안정화 정책을 방해하기 위한 저항세력의 반격은 오히려 전쟁 때보다 더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다. 필자는 합동참모본부에서 편집한「이라크 전쟁 종합 분석」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전훈 분석반(戰訓 分析班)에서 획득한 자료 중 전후(戰後) 가장 핵심적인 전투였던 「팔루자 작전」을 참고하였다. 본 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교훈분석이 미흡한 점이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차후 충분한 자료가 획득되면 이라크 전쟁의 교훈 분석을 다시 추가 하고자 한다.

## Ⅱ . 이라크 國家 略史

### 1. 고대 및 중세

- 고대 Mesopotamia 문명의 발상지.
- BC 2400년경, Sem족계의 아카디아인(Akkadians)이 정착하여 시리아, 페르샤만까지 지배.
- BC 1800년경, 함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바빌론(Babylon) 왕국 건국.

주 1) 중앙일보 '05년 3월 17일(17면), 브루킹스 연구소가 본 이라크전.

- BC 539년, Persia의 사이러스(Cyrus)대제가 신바빌론 제국을 정복한 이래 이란족의 통치가 약 1,000년간 계속됨.
- 762년, 압바스 왕조(Abbasid Family)가 Caliph좌를 차지 Baghdad를 새 도읍으로 결정.
- 1258년, 몽고족이 침략.
- 1638년 이후 Ottoman Turkey의 통치 하에 있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터키에 대한 반란과 함께 민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음.

## 2. 근 대

-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와의 비밀협정(Sykes - Picot협정, 1916. 3)을 체결하고 대전 후에도 이라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행사하려했으나, 아랍 민족주의 세력대두를 무마하기 위해 1921. 8. 23. Hashem가의 인물을 초대 국왕으로 하는 입헌군주제 이라크 왕국(Hashemite 왕조)을 탄생시킴.
- 1958. 7. 14 Qasim 준장주도의 쿠데타에 의하여 Hashemite 왕조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수립됨.

## 3. 현 대

- 1963. 2. 8. 청년장교단과 Baath당의 혁명 성공으로 친소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급진적인 경향을 보인 Qasim정권이 붕괴되고 Abd Al-Salam Aref 대통령이 등장하였음.
- 1966. 4. Aref 대통령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그의 실세인 Abd Al-Rahman Aref가 대통령 겸 수상에 취임. 1967. 5. 국민연합 내각을 수립.
- 1967. 6. 제3차 중동전쟁의 영향 등으로 1968. 1.부 각료의 사임, 반정부 시위와 1968. 3~4. 기간 중 북부 Kurd족과의 무력 충돌, 석유를 둘러싼 분규 등으로 말미암아 정세가 불안해지기 시작함.
- 1968. 7. 17. Baath당 무혈 쿠데타가 성공하여 Ahmed Hassan Al-Bakr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Baath당 정권 수립. 동 정권은 반제국주의, 아랍의 통일, 사회주의 노선에 의 복귀를 표방함.
- 1979. 7. 16. Bakr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고, 1969년 이래 Baath당의 막후 실력자로서 군부와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RCC부의장인

Hussein이 대통령 겸 RCC의장이 되어 최고 권력자로 등장하였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인수, 혁명 이후 최초로 민정을 수립함으로써 정국이 안정되어가자, Hussein 대통령은 의회 구성을 통해 군부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1980. 6. 20. 이라크 사상 최초로 국회의 원 선거를 실시하였음.(총의석 250석, 임기 4년) 그 후 2대(1984. 10), 3대(1989. 4), 4대(1996. 3) 5대(2000. 3) 선거를 실시함.

- 1980. 9. 17. 이라크는 1975년 Algiers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Shatt Al-Arab수로의 영유권 주장.
- 1980. 9. 20. 이란도 군 동원을 시작하고 9. 22. 이라크가 이란 남서부 석유지대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8년간의 이란·이라크전쟁 발발.
- 1987. 7. 20. 유엔 안보리는 종전 결의안 제598호를 채택, 이라크는 동 결의안 수락.
- 1988. 8. 2. 이란도 598호를 수락, 8. 20. 휴전 발효.
- 1990. 8. 2. 쿠웨이트 침공.
- 1991. 1. 17. 걸프전 발발.
- 1991. 2. 24. 다국적군 지상전 개시.
- 1991. 2. 28. 부시 대통령 전투중지 선언.
- 1996. 12. 5. 유엔 Oil-for-food 프로그램<sup>2)</sup> 개시.
- 1998. 10. 31. 이라크 측은 UN사찰의 일상적인 감시활동 거부.
- 1998. 12. 이라크의 UNSCOM(UN Special Commission) 불시 사찰과 생화학무기 관련 자료 제출 거부로 12. 17~20.간 미·영의 이라크 공습.
- 1999. 12. 안보리는 이라크 제재에 대한 포괄적 결의안 제1284호를 채택, UNMOVIC(UN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을 창설.
- 2001. 11. 제11차 Oil-for-Food 프로그램 연장.
- 2002. 9. 12. 부시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및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즉각 폐기, 테러지원중단, 국민억압 중지 등 5개항을 이라크에 요구하였고 향후 UN과의 협력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UN 차원의 문제 해결 실패시 일방적 조치 의사 천명.

주 2) 사담 후세인은 1988. 8. 이란·이라크 전쟁 휴전 및 1991. 4. 걸프전 직후에도 대규모 쿠르드 반정부세력 토벌작전을 단행, 수많은 쿠르드 민간인이 학살되고, 터키 및 이란 등으로 피난,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한 바 있음. 걸프전후 이라크 정부군의 쿠르드 학살 등 탄압정책으로 미·영은 이라크의 북부 비행 금지 구역설정, Oil-for-Food의 대 쿠르드 우선 배려 등으로 쿠르드 자치주들은 남부 이라크인들에 비해 다소 여유있는 생활을 해왔음.

- 2002. 11. 8. UN 안전보장이사회 대이라크 결의(제1441호)<sup>3)</sup> 만장일치 채택.
- 2002. 11. 13. 이라크, 안보리 결의 1,441호에서 규정한 무기 사찰 수용의사 표명.
- 2003. 1. 30. 유럽 8개 정상(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이라크 WMD 무장 해제를 위한 유럽과 미국간의 연합 촉구 공동서한을 주요국 언론에 발표.
- 2003. 2. 5. Powell 미국무장관, 안보리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라크의 WMD 은닉 증거(위성사진, 전화통화 감청 정보, 목격자 증언 등) 제시.
- 2003. 2. 8. GCC 6개 회원국, GCC 공동방위군인 “반도 방패군”(Peninsula Shield Force) 쿠웨이트 배치 결정.
- 2003. 3. 17. 부시 대통령, 대국민 연설. 사담 후세인에 48시간 최후 통첩.
- **2003. 3. 20. 미국 바그다드에 미사일 공격 개시. 전쟁발발.**
- 2003. 4. 9. 미군 바그다드 장악. 전국 각지서 약탈 발생.
- 2003. 5. 1. 조지 부시 대통령 주요전투 종료 선언. 2003. 12. 13. 후세인 전 대통령 티그리트 농가서 미군에 체포.
- 2004. 6. 1. 이야드 알라위 총리의 임시정부 출범.
- 2004. 11. 8. 미군 팔루자 장악작전 재개, 1주일 후 저항 세력 1,600여명 사살.
- 2005. 1. 30. 제헌의회 선거 실시, 시아파 및 쿠르드족 정당연합 승리. 1. 16. 제헌의 회(275석) 개회.

### Ⅲ. 戰爭 背景 및 意圖

#### 1. 직접적인 의도

- 미국은 9·11 테러에 대응한 「테러와의 전쟁」 전략 개념과 우선순위의 변화로서 테러리즘 대응개념을 「봉쇄와 억제로부터 선제공격」으로 전환하였고 미국 안보전략 최우선순위를 전 지구적 테러조직과 지원국 분쇄로 수정하였다.
- WMD 확산국 및 불량국과 테러리스트의 결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라크 WMD의 미국 본토 위협 및 테러리스트와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으며 보다 안정된 중동지역 안보여건 조성을 통해 테러 발생 환경을 근원적으로 제거했다.

주 3) 주요내용 : 이라크에 대해 무장해제 의무를 준수할 최종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위해 강화된 사찰체제를 설립. 사찰과정에서 이라크측 비협조시 “추가적인 중대한 의무 위반”을 구성하며, 동 의무위반 문제를 안보리가 평가(access)토록 하는 문안 추가.

- 미국의 이라크 무장해제 요구 및 이라크 측의 거부에 대하여 부시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대 이라크 5개항을 요구하였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라크 결의(1441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2002. 11. 8)하였다. 그리고 2003. 3. 17. 부시 대통령은 대후세인 최후통첩<sup>4)</sup>을 하였다.

## 2. 간접적인 의도

- 국제관계면에서 미국과 EU간 중앙아시아 및 중동지역 패권경쟁과 유럽 주도권 경쟁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분쟁에서 주도권 장악을 모색함에 있어 미측에 우호적인 팔레스타인 압바스 총리 및 내각을 수립하고 후세인 정권에 우호적인 팔레스타인 아라파트 수반을 차단하고 하마스 등 무장단체 제거를 모색하며 이라크 내 시아파 모슬렘과 이란과의 연계차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다.
- 국제 경제적인 면에서 '70년 이후 유전개발에서 배제된 미국 석유 기업들의 개발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라크전을 통해 이라크 석유개발권 획득을 추구<sup>5)</sup>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라크 유전을 장악함으로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 정책 실현으로 중동 국가의 에너지 의존도를 축소하고 전략적 융통성 확보를 강구하여 세계에너지를 주도<sup>6)</sup>함에 있다.

주 4) 이라크 후세인 및 아들은 48시간내 이라크를 떠날것, 미국 및 동맹국은 4개월 반 동안 안보리 요구 실행에 최선 다할 것임. 유엔안보리의 책임 미완수로 미국이 책임 인수함. 미국은 미 의회의 압도적 지지하 무력사용 자위권을 보유함. 이라크군이 이라크 정권 위해 싸울 경우 전범자로 처벌할 것임.

\* 테러와의 전쟁에서 단계적 수행은 1단계 아프간전쟁, 2단계는 이라크전쟁으로 "9·11테러 이후 대이라크전쟁은 예견된 전쟁이며 9·11테러에 대한 미국의 성공적인 결말은, 우선 단기적 목표는 「빈 라덴」을 잡는 것이나 장기적 목표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몰락시키는 것이며 이 전쟁의 최종 목표는 사담 후세인"이었다.

5) 1920년 이라크 석유개발을 미·영이 장악하였으나 1972년 후세인 등장 이후 이라크 석유 국유화로 미·영은 기득권을 상실하였고, 특히 1991년 걸프전 이후 유전개발권을 불·러에 집중 배당함으로써 미·영은 이라크 석유 이권으로부터 완전 배제됨.

\* 이라크 석유 매장량은 약 1,120억배럴로 사우디(2,618억배럴)에 이어 세계 2위이다.

6) 미국내 석유생산은 매년 12% 감소추세로 2020년경 대외 석유수입 의존도는 67%에 도달할 예정(현재 해외 의존도는 50%)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카스피해 연안의 천연가스,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이라크 유전(전세계의 원유 11% 매장) 개발시 향후 사우디 등 중동국 의존도를 축소시킬 수 있다. 미국은 국내 총 석유 소비량의 30%를 중동으로부터 수입하며 이중 사우디로부터 약 53%를 수입하고 있다.

- 미(美) 국내 정치면에서 2004년 11월 미 대선에 대비해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율 하락 만회를 추구하고 이라크전으로 미 석유회사 순익이 급증되어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전후 이라크에서 석유개발 주도시 미 에너지원의 다원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 Ⅳ. 聯合軍과 이라크軍의 軍事力 및 軍事戰略 比較<sup>7)</sup>

### 1. 연합군 전투력(표 1. 연합군 전투력 참조)<sup>8)</sup>

이라크 전쟁에 참가한 연합군은 역사적 배경이 같은 영어권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와 동구권 국가인 폴란드 등 일부국가가 직접 전투에 참가 하는 지상군, 항공기 등 전투 병력지원은 3개국(영국, 호주, 폴란드), 화학부대, 의료지원 등 후방지원은 15개국(한국, 스페인, 덴마크 등), 기지제공, 영공통과 등 편의제공은 30개국(터키, 사우디, 카타르 등) 등 총 48국이 군사적 지원을 하였다.

### 2. 이라크군 전투력(표 2. 이라크군 전투력 참조)<sup>9)</sup>

후세인은 걸프전 이후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영공방어를 위해 공군으로부터 방공임무를 분리하여 대공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총괄하는 별도 방공 사령부를 창설하고 전쟁직전(3. 15), 지휘통제의 와해 상황에 대비하여 지상군을 남부, 북부, 중부, 남서부 4개 지역사령부로 재편하였고 전시 지상군은 3가지 그룹으로 조직하여 그룹 간 상호 견제하에 운용하되 특별 공화국 수비대(4개 여단, 1.2만~1.5만명)는 군부대중 유일하게 바그다드 시내에 위치하여 후세인 정권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충성심이 강한 최정예부대로 편성, 공화국 수비대(2개 군단 6개 사단, 6~7만)는 바그다드 외곽 및 북부 중요지역(모술, 키르쿠크)에 위치하고 주로 기계화되어 전투력 수준이 우수하며, 정규군(5개 군단, 17개 사단, 사단별 1만명 수준)은 이란, 터키 국경을 방어하고 정치적 목적하에 시아파 거주 도시 지역에 배치하는 등 군사 기구를 재편하였다. 또한 후세인은 중앙집권적 지휘를 위해 능력보다는 충성심 위주 친인척 및 동향 출신들

주 7)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분석, 2003. 10. 10, pp.45~46.

8)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분석, 2003. 10. 10, p.45.

9)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분석, 2003. 10. 10, p.45.

중심의 지휘체계를 구성하고 지휘관이 후세인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를 유지 하였다. 걸프 전쟁시 이라크군의 전력은 정규군은 60개 사단 51만명(공화국 수비대 13만명 포함), 예비군 48만명 등 총99만 명이었고 탱크는 4,000대(T55/T62, 3,500, T72, 500), 장갑차는 2,500대, 야포 2,700대, 헬기 160대였다.<sup>10)</sup> 걸프전쟁 이후 이라크는 해외의 신무기를 도입하지 못하여 공화국 수비대를 제외한 모든 사단은 전투효율성을 50% 유지하였고 1991년 이후 각 군 통합훈련 또는 대규모 훈련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 10년 이상 계속된 UN 경제제재로 전투력 개선이 미흡하여 지난 걸프전 대비 1/3 수준 이하로 전투력이 약화되어 있었다.

표 1. 연합군 전투력

| 구 분  |     | 미 국                                                 | 영 국     | 기 타                       | 계        |
|------|-----|-----------------------------------------------------|---------|---------------------------|----------|
| 육 군  | 병 력 | 67,000명                                             | 26,000명 | 호주 : 200명,<br>체코 등 : 450명 | 93,650명  |
|      | 전 력 | 탱크/장갑차 : 1,800대, 공격헬기 : 200대                        |         |                           | -        |
| 공 군  | 병 력 | 37,000명                                             | 8,100명  | 호주 : 470명                 | 45,570명  |
|      | 전 력 | 총 항공기 : 1,700대<br>전투기 : 900대, 지원기 : 200대, 헬기 : 600대 |         |                           | -        |
| 해 군  | 병 력 | 70,000명                                             | 4,000명  | 호주 : 1,100명<br>폴란드 : 53명  | 75,153명  |
|      | 전 력 | 항공모함 8척(영국 헬기항모 포함)<br>함정 및 잠수함 : 120척, 항공기 : 500여대 |         |                           | -        |
| 해병대  | 병 력 | 70,000명                                             | 4,000명  | -                         | 74,000명  |
|      | 전 력 | 항공기 : 180대<br>탱크, 장갑차, 곡사포 등 지상 전투장비                |         |                           |          |
| 특수부대 |     | 5,000명                                              | 1,000명  | 호주 : 300명,<br>폴란드 : 130명  | 6,430명   |
| 소 계  |     | 249,000명                                            | 43,100명 | 2,703명                    | 294,803명 |

\* 1991년 걸프전시 33개 파병국 중 11개 다국적군이 직접 전투에 참가

주 10) U.S.News & World Report, Jan, 14, 1991, p.29.



표 2. 이라크군 전투력

| 구 분   |    | 군 사 력                                             | 비 고                                                      |
|-------|----|---------------------------------------------------|----------------------------------------------------------|
| 육 군   | 병력 | 375,000명                                          |                                                          |
|       | 전력 | 탱크/장갑차 : 2,200대/3,700대<br>야포 : 2,500여문, 헬기 : 375대 | - 정규군, 공화국수비대 등                                          |
| 공 군   | 병력 | 20,000명                                           | - 폭격기 : H-6D, TU-22                                      |
|       | 전력 | 총항공기 : 775대 (전투기 : 316,<br>지원기 : 176, 헬기 : 283)   | - 전투기 : MIG-21/23/25/29<br>- 공격기 : F-1, SU-7/20/22/24/25 |
| 해 군   | 병력 | 2,000명                                            | - 미사일정, 기뢰제거함, 정찰함 등                                     |
|       | 전력 | 총함정 : 18척                                         |                                                          |
| 방공사령부 |    | 17,000명                                           | - 지대공 미사일 : SA-2/3/6/7<br>- 대공포 : 2,000문                 |
| 준군사부대 |    | 44,000명                                           | - 보안군, 민병대                                               |
| 총 계   |    | 429,000명                                          |                                                          |

### 3. 미국과 이라크의 군사 전략

- 미국의 군사전략에 있어서 전략목표는 이라크 정치와 군사조직을 제거함에 있어 후세인을 제거하고 정치기반을 이루고 있는 바트당을 해체하며 공화국 수비대 및 친위부대를 격멸한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이라크의 완전한 무장해제를 달성하고 미국 국익에 유리한 안정화 작전을 시행한다.
- 전략개념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하여 이라크군을 마비시켜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며 이라크 내 안전한 안보환경을 확립하고 민간행정기능을 향상 시킨 후 의명 민간정부에 책임을 전환하고 병력을 철수한다.
- 부대 운용에 있어서 지상군은 이라크 내부로 넓고 중심 깊은 기동을 상황에 맞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공격을 실시하고 특히 바그다드를 단기간 내 점령하여 전쟁을 조기 종결에 기여한다. 특수작전 부대는 이라크 내부 중심 깊은 지역에서 적진지를 공격, 교량 및 도하지역을 확보, 유정 및 관련 주요시설을 확보하고 지상부대 지원과 항공기 유도도 공군을 지원하며, 시리아 국경지역과 인접한 서부지역에서의 비행장 확보 및 국경을 통제한다. 공군은 전쟁 전 기간 동안 이라크의 전쟁지도 본부와 지휘, 통제시설 및 체계 등 핵심표적을 정밀유도 무기로 타격, 지상군부

대와 특수작전 부대를 지원하며 전자전을 수행하고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해군은 해군 전투기 및 크루즈미사일로 공격, 해상작전 및 기뢰제거 작전 수행을 통해 해상교통로 확보 및 접근여건을 보장하며, 합동성(Jointness)에 의거 각 군의 능력을 실시간대 통합하여 타격목표를 선정하고 요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격을 실시하며, 적시 적절한 전투근무지원을 구축하여 실시간 지원한다.

- 이라크군의 군사전략에 있어서 전략목표는 바그다드 사수로 「후세인」정권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 전략개념은 연합군의 인명피해를 최대로 강요하여 장기 및 지구전을 모색하고 인간방패 전술을 전개하여 연합군 측의 인명중시 전쟁 수행방식을 최대로 역이용한다. 그리고 대규모 유정방화와 민간피해를 유발하여 전쟁 부당성의 부각을 통해 범세계적으로 반미(反美)와 반전(反戰)여론을 확산한다.

## V. 作戰計劃 및 經過

### 1. 작전계획(그림 1. 기동계획도 참조)

이라크 자유 작전은 전쟁준비단계, 결정적 작전단계, 안정화 작전단계 등 3단계로 단계화하여 작전을 실시하였다.

- 전쟁준비(Strategic Shaping)는 먼저 NPR(핵태세 검토 보고서)을 비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선제공격 독트린을 천명 및 NSS(국가 안보전략) 발표 등으로 선제공격의 당위성과 무력수단의 자유로운 사용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심리전과 전자전 수행을 통해 이라크 국민과 군대의 항전(抗戰)의지를 저하시키고 전장이 탈, 쿠데타, 민심이반을 유도한다. 또한 제공권을 확보하고 이라크 방공능력을 무력화하며 특수부대를 사전에 투입하여 작전여건을 조성하고 전쟁연습 및 현지 적응 훈련을 통하여 효과중심 작전, 신속 결정적 작전, 작전 상황의 실시간 공유, 합동 연동계획, 상설합동 전력본부, 작전 통신망 평가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였다.
- 결정적 작전(Decisive Operation)단계에서의 작전개념은 최단시간 내 중심부인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이라크 지휘부의 「후세인」 제거(Decapitation)와 군지도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주요 도시지역 거점을 우회하고 공격 진행간에 병참선 및 측방 방호는 공군력과 공격헬기를 최대 이용하며 전방위 동시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주력



그림 1. 기동계획도

의 진격 여건을 보장한다. 제5군단을 주공으로 나시리아-나자프-바그다드 방향으로 공격을 하고 제1해병 기동군을 조공으로 2개 방향으로 공격하되 미(美) 해병 1사단을 주축으로 쿠트-바그다드 방향으로 공격하고, 영(英) 1기갑사단을 주축으로 바스라 일대로 공격하였다. 제173공정여단은 특수부대와 협조하여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쿠르드반군을 통제하여 이라크군을 고착 견제 및 유전지대를 확보하고 특수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였다. 이라크군의 작전개념은 첫째, 회피전술로서 초전에 생존대책을 강구하여 내선의 이점을 이용하여 신속히 증원하고 바그다드 남부지역에 주력을 집결하여 시가지 및 하천선을 이용하여 방어한다. 그리고 남부 평원지대보다는 북부 산악지대를 거점으로 한 장기전과 함께 바그다드에서 시가전을 모색한다. 둘째, 게릴라 전술로서 연합군

주접근로 요충지를 점령하여 병참선을 위협하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 위해서 민간인과 혼재된 상황하에 민간복장을 착용하여 매복 및 기습공격과 차량을 이용하여 자폭공격을 하고, 거짓 항복 후 연합군 접근시 기습사격 등 비대칭적 방법 및 수단으로 저항을 계획하였다.

- 안정화작전은 먼저 군사력을 7개 지역<sup>11)</sup>으로 재배치하고 이라크 재건 및 과도정부 수립 지원을 위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게 민간질서를 확립하며 부족, 종족, 종교적 유산을 유지한 상태하에서 모든 이라크인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다양하고 대표성 있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 2. 작전경과

연합군은 3월 20일 새벽 최초작전(3. 20. 05:30~20:00)으로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 특수부대, CIA요원에 의한 정보를 종합 판단하여 후세인 거처에 대하여 미 국가안보기구 통제하에 신속하게 참수작전을 감행하였다. 기회가 포착된 목표물에 대해 F-117(2대) 및 토마호크 미사일(40발)로 선별적 정밀타격을 실시하는 등 대규모 공중공습과 동시에 지상전력(5군단, 1해병기동군)을 투입하여 개전 초기 주요 도시거점을 회피하면서 5일간 작전으로 460km를 파죽지세로 진격<sup>12)</sup>(일일 평균 90~100km 기동)함으로써 연합군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단기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었다.

이때 후세인 대통령은(3. 20. 07:30) 공습 2시간 경과 후 대국민 연설을 통해 결사항전을 독려하고 쿠웨이트에(12:30. 15:45) 지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나 2발은 피격되었다. 그리고 남부 바스라 유전지대 유정 3~4개소를 방화하였다. 당시 공화국 수비대 함무라비 기갑사단 소속의 공병 중대장의 증언에 의하면, “애초 후세인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다. 후세인이 TV에서 승전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고 병사들이 술렁였다. 나는 전쟁이 일어날리 없다며 부하들을 달래기도 했다.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우리는 후세인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병사들은 후세인에 대한 경멸을 자주 들어냈고 국민을 몰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공화국 수비대는 미국의 사전 폭격으로 궤멸돼 지상전에 앞서 이미 전투력을 상실했다. 미군이 바그다드로 진격한 4월 5일 150명의 부하 중 145명이 탈영한 상태였다. 왜냐하면 어린병사들이었으며 나는 그들이 탈영에 대한 큰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영하는 병사들을 잡을 수 없었다. 다

주 11) 「모술」, 「키르쿠크」, 「쿠르드족 접경」, 「티그리트」, 「서부국경」, 「카르발라/나자프」, 「바스라」.

12) 미군은 걸프전시 쿠웨이트 수복 후 바스라 일대에서 이라크의 공화국 수비대와 결전을 치렀으나 금번 전쟁에서는 바스라에서의 결전을 회피하고 직접 중심인 바그다드로 진격함으로써 이라크군을 분리하여 각개격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른 부대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부대원 중 누구도 미군에 총을 쏘거나 교전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연합군은 3. 20. 20:00~3. 24.까지 선별적 공습이 이라크 지휘부 제거 목표에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라 「충격과 공포(Shock & Awe)」작전에 돌입하여 적의 전의를 심리적으로 무력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밀유도 미사일로 군 지휘부, WMD시설, 방공망 등 전략목표에 고강도 공습을 실시함과 동시에 「럼스펠드」식 “신속 기동전략” 개념에 의거 지상군부대 및 특수부대를 투입하였다. 참수작전 개시 후 14시간 30분만에 지상군을 바로 투입한 것은 '91년 걸프전 당시 1개월여에 걸친 폭격 후 지상군 투입과 같은 전통적 무기 시스템과 기동전략은 속도, 충격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였고 기만작전의 일환으로 이라크군의 미 지상군에 대한 방어준비 시간을 박탈하여 적이 배치되기 이전에 공격하여 기습을 달성하고 이라크군이 유정을 파괴하기 전에 이를 확보하는데 있었다.

3월 21일 「A-Day」<sup>13)</sup>를 선포하고 대규모 공중공격과 병행하여 지상 작전을 전개하였고 3사단은 이라크 영토 내로 깊숙이 진격하였으며 해병기동군은 「움 카스로」항구로 진입하여 바스라 외곽으로 진격하였고, 영국 3코만도 여단은 「알포」반도에 상륙작전을 실시할 때 경미한 저항만 있었다. 그리고 제82공정사단 일부병력은 특수부대가 기 확보한 서부지역 H-2/3 비행장일대에 낙하 후 이라크 남서부군단을 견제하였다. 다음날 연합군은 쾌속 진격과 병행하여 바그다드 전략표적을 지속적으로 공습하면서 제173공정여단과 이태리군은 북부지역(아르빌)에 전개를 개시하여 쿠르드 반군과 협조하여 유전지대 확보 및 이라크 북부군단을 견제하였고 해병기동군은 「움카스르」항구를 완전점령하고 바스라 최대 유전인 「Rumaylah Oil Fields(전쟁전 일일 160만 배럴 생산)」를 장악하였다.

3월 23일은 연합군 최악의 날로서 낫시리아 등 남부지역 주요 거점에서 이라크군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 3사단은 낫시리아를 우회하여 이라크에 200km까지 진격하였으나 해병기동군은 낫시리아 전투에서 10명 사망과 다수인원이 부상하였고 전투군무지원부대는 이라크군의 매복에 12명이 실종되었다. 이에 따라 이라크 증원군 차단과 연합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라크 북부지역 전선에 폭격을 강화하고 지상병력을 증원하는 등 바그다드 남쪽 80km 지점(“카르발라” 남방)까지 진출하였는데 이는 전쟁초기 지상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전략거점에 화력을 집중 및 봉쇄 후 바그다드까지 진격하는 「우회전략」을 구사하였다. 제3사단은 「카르발라」 남단까지 진격하였고 해병기동군은 바스라 및 낫시리아 내 잔적 소탕작전을 계속하였다. 이날 오후부터 모래폭

주 13) 터키는 영공개방을 A-day : The initiation of shock air forces, S-day : The initiation of special operation forces, G-day : The initiation of ground forces, 구분하여 작전지원.

풍(시속 최고 50노트)이 발생하여 진격을 중지하였다. 이라크군은 연합군에 대비하여 전투력이 열세한 것으로 판단하여 「바그다드 결전」 전략을 채택하여 바그다드로 접근하는 전략 요충지 위주로 지연작전을 수행하고 핵심전력(공화국 수비대)은 최초부터 바그다드에 증첩하여 배치하였고 미국에 대항하여 “성전(聖戰)”을 표방하여 이웃 아랍국의 자원 게릴라를 규합하는 등 실제로 헤즈볼라 2,500여명, 알제리인 700여명, 시리아인 수백명, 이라크 국외 거주인 6,000여명이 참전하였다. 또한 기상 악화와 신장된 병참선 유지가 곤란한 연합군 측의 공격기세가 둔화된 호기를 이용하여 일시적인 공세행동으로 전환하여 연합군 측후방을 위협하고 공격을 시도하여 “바스라”에서 포위된 이라크군 3군단 주력에 대한 증원 효과로 포위망으로부터 탈출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라크군이 공격을 위한 기동간 연합군측의 ISR 자산에 스스로를 노출시켜 연합군 공군력에 의해 각개격파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합군은 3월 24일 오후부터 3월 28일까지 모래폭풍의 기상악화 기간 동안 소강상태를 이용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고 작전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지상군은 추가 증원전력을 조기에 투입을 결정하고 독일 주둔 1기갑사단(15,000명)과 1보병사단(17,000명)에 전개를 지시하고 미 본토 1기갑수색사단, 3기갑수색연대에 전개 대기지시를 하고, 101공중강습사단(-)과 82공정사단을 병참선 보호 목적하에 투입하여 병참선 확보에 주력하면서 남·북·서부 3개 지역으로 전선을 확대하여 현 전선에서 고착하는 등 이라크군의 게릴라전술(위장/기만)로 연합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직접전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남부 전략거점(낫시리아, 바스라 등)을 장악하여 후방을 우선 안정화시키는 계획으로 수정하였다.

3월 25일은 강한 모래바람과 비가 내려 악기상 조건하에 나자프, 낫시리아에서의 교전속에서도 바그다드 방향으로 진격을 계속하였는데 제3사단은 바그다드 남쪽 100km 지점에서 이라크 “메디나” 기갑사단과 교전시 40여대의 아파치 롱보우 공격헬기를 이용하여 공화국 수비대를 공격중 이라크 소화기 및 RPG에 의해서 헬기 1대가 격추(승무원 2명 생포 : 이라크 TV방송)되었는데 이는 1960년대 월남전에서 월맹군이 최초로 사용했던 헬기 매복전술과 유사하다. 미국 해병 제1사단은 움카스르항을 완전 장악했고 영국 제1기갑사단은 바스라 외곽으로 진출하는 이라크 탱크 수십대를 격멸하고 바스라 시가전에 돌입하였다. 연합군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바그다드 진격이 지연되는 가운데 후방 지역 안정화에 주력하는 제1기갑 및 제1기보사단(독일주둔)을 전장에 투입을 결정하여 전개지시가 되었고 제3사단은 나자프 남동지역에서 이라크군 매복부대와 수차례 교전을 하고 제1해병기동군은 낫시리아에서 준군사부대 지휘소로 이용되던 병원 장악과 다수의 군용물품 및 화생방장비를 발견하였다. 제82공정사단은 지상구성군 예비에서 제5군

단 작전통제로 전환하여 「사마와」지역으로 투입되어 병참선 확보 작전을 개시하였다. 제173공정여단(이태리주둔) 일부는 북부 「아르빌 인근 비행장」을 장악하였다.

3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후방지역 안정화작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오운 부대를 남부전선에 투입하여 공격기세 유지 및 북부지역 전선형성을 본격화하였다. 3월 29일 모래폭풍이 걷히고 맑은 기상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공격을 재개하였는데 제3사단은 카발라 인근 이라크 메디나 사단을 집중 공격하여 일부 선두부대는 바그다드 남쪽 50km까지 진격을 하였다. 해병기동군은 낫시리아에서의 잔적소탕 작전과 병행하여 북동부 방향으로 공격하고 제101공중강습사단은 아파치 헬기로 전방 3사단을 지원하고 나자프일대에 공세적인 정찰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73공정여단과 특수부대 및 쿠르드반군은 상호 연계하여 이라크군 증원을 차단하고 영국 제1기갑사단은 바스라 북부지역으로 기동하여 이라크군 증원을 차단하였다.

3월 28일부터 3월31일까지는 대규모 공습하에 바그다드 공략 준비로서 지상군중 중부지역은 주공인 5군단은 나자프-카르빌라 지역에서 공화국 수비대와 교전과 격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서부지역은 검문소를 설치하여 이라크 비정규전 부대 및 이라크 정권 동조 세력 이동을 차단하고 주력부대 공격을 지원하며 남부지역은 낫시리아 평정작전(1해병 원정군)과 유전지대, 움카스르 방어를 위해 북으로부터의 이라크군 증원 차단은 영국군이 실시하며 북부지역은 쿠르드족 지역의 안정화 작전 실시와 병행하여 이라크군을 압박하여 고착 견제하였다. 공군력은 대규모 주·야간 폭격을 지속적으로 실시(기간 중 6,300소티 운용)하고 특수부대는 중요표적 공격을 유도하고 WMD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해상전력은 소해작전을 종료하고 이라크전 항구 확보 및 사용을 보장하며 특히 바그다드로 접근해 감에 따라 Red-Line<sup>14)</sup>을 설정하여 대비하였다.

3월 30일 바그다드 외곽 100km 지점을 연하는 주요 전략요충지 확보를 위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는데 제3사단은 카발라-사마와-나자프를 연결하는 삼각핵심지역 및 바그다드로 진격할 수 있는 「힌디아」 인근의 유프라테스강 주요교량을 확보하였다. 3월 31일은 바그다드 외곽 주요거점을 공격함으로써 바그다드 일대에 배치된 이라크군을 끌어내려 각개격파하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였다.

바그다드를 포위하고 시가전(그림 2. 바그다드 시가전도 참조) 돌입을 준비(4. 1~4. 4)하면서 지상군은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점령하고 시가전을 준비하고 공군전력은 지상군을 근접 지원하고 전략 표적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며 특수부대는 시가전 여건을 탐색하고 후세인 제거에 주력하였다. 이때 이라크군은 연합군의 진출 지연을 이용하여 공

주 14) 이라크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리라 예상되는 지역을 연하는 선으로서 비실체 개념적인 선.





대는 북부 이라크군을 집중 공격 및 티그리트에서 바그다드로 연결되는 주요 통로를 확보하였다. 4월 4일은 공화국 수비대가 거의 괴멸되었고 바그다드 증원 및 바그다드 내 군사 지도부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서 남서 및 남동 접근로를 장악하여 바그다드 진입 준비를 완료하였다. 제3사단은 “함무라비” 및 “메디나” 사단을 격멸 및 “사담 국제공항”을 점령하였다. 해병 기동군은 “니다” 및 “바그다드” 사단을 격멸하고 바그다드 동측 외곽 6km까지 접근하였다. 4월 5일 3사단은 티그리스강 서안지역 위력수색 후 바그다드 외곽으로 복귀하였다.

결정적 전투단계로 연합군은 4월 5일부터 9일까지 바그다드를 사실상 장악하고 잔적을 소탕하면서 북부지역으로 공습을 전환하였다. 지상군 제5군단은 바그다드 서측으로 진입하여 북서측으로부터 이라크군 증원을 차단하고 제1MEF군은 바그다드 동측으로 진입하여 북측으로부터 이라크군 증원을 차단하여 바그다드 국제공항과 라시드 공군기지를 전진기지화하였다. 공중작전은 바그다드 중심부 근접 항공지원 및 북부지역 전략 표적을 공격하는 등 미 수송기 C-130을 최초로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착륙(4. 6)하였고 미 중부사는 이라크 전 지역 제공권 확보를 선언(4. 7)하였다. 전날(4월 5일) 위력수색으로 이라크 바그다드를 고립하기 위하여 시내에 재돌입하여 중심부를 장악하였는데 제3사단은 3개 방향(남·서·북서)에서 바그다드로의 증원을 차단한 가운데 중심부로 돌입하여 대통령궁을 포함하여 대부분 핵심시설을 장악하였고 해병기동군은 비알라 강을 따라 동쪽으로부터 바그다드를 고립하고 173공정여단은 키르쿠크를 직접 압박하여 이라크군 고착 및 이탈을 거부하였다. 기타부대(82, 101, 영국군)는 책임지역(나자프, 낫시리아, 카발라, 바스라, 누마니야, 사마와, 디와니아 등)에서 안정화 및 인도적 지원 작전에 주력하였다.

4월 7일 바그다드로 통하는 고속도로 6개중 5개를 장악하여 바그다드 시내 점령지역 확대 및 동남방향에서 진입을 시도하였다. 3사단은 이라크 대통령궁에 성조기(星條旗)를 게양하고 남북방향으로 공격을 확대하였으며 해병기동군은 바그다드 동남부 방향으로 진입하여 라시드 공군기지를 공격하였다. 이때 미국 국방부는 3번 도로를 제외한 1, 5, 7, 8, 10번 및 주요 간선도로를 통제하고 이라크 바그다드에 야간 통행 금지령을 공포하였다. 다음날 해병기동군은 라시드 공군기지 점령 및 시내 중심부 공격에 가담하고 바그다드시내 이라크군 무력화를 발표하였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탱크 850대중 19대, 화포 550문중 40문만 현재 보유하고 저항을 하고 있었다. 연합군은 바그다드 점령 및 북부 티그리트 공격으로 이라크군의 관심을 전환(4. 9~11)하여 놓고 4개 방향에서 동시에 전격적으로 돌입하여 바그다드 전 지역을 사실상 점령하여 체니 부통령은 후세인 정권 붕괴를 지적했다. 제3사단은 바그다드 중심지 파드루스 광장에서 후세인 등

상을 철거(4. 10)하고 미 4보병사단 1개 여단은 바그다드 북부지역으로 투입(4. 11)하였다. 바그다드를 점령한 후 연합군은 북부지역을 계속 압박(4. 11~14)하면서 티그리트를 장악함으로써 사실상 주요전투를 종결하였다. 이때 제173공정여단은 이라크 5군단과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무장해제(4. 11)를 하였고 특수부대 및 쿠르드 민병대는 “모술” 및 “키르쿠크”를 점령(4. 11)하고 미군은 티그리트에서 최후의 격렬한 교전(4. 13)이 발생하였으나 이때 바그다드 시내에 민사 작전본부(CMOC : Civil Military Operation Center)를 설치(4. 13)하고 제1해병기동군 TF “Tripoli”(1개 연대급)는 티그리트를 공격하고 저항세력을 추적 격멸하고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미 국방부는 주요 전투가 근본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선언(4. 14)하였다. 이라크군은 지휘체제가 완전히 와해되고 소수의 산발적 저항이 산재하였지만 북부지역 5군단장이 항복(4. 10)하고, 서부 국경수비 책임 지휘관이 항복(4. 11)하면서 북부지역 모술(4. 11), 키르쿠크(4. 12), 티그리트(4. 13)가 함락되었다. 4월 15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지속됨을 선언하였는데 종전선언을 유보한 배경은 후세인 생사 여부가 미확인되었고 전쟁의 정당성 증거 미확보(WMD 증거확보 필요성)와 이라크를 대표할 항복 선언의 주체가 불분명하며 종전 선언시 전후 재건사업 관련 국제사회에 개입 빌미를 제공할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5월 1일 부시 대통령이 에이브러햄 링컨호에서 사실상 종전(終戰)을 선언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은 끝이 난 것이다.

- 안정화작전은 연합군 사령부(CJTF-7 : 연합군 사령부 명칭은 최초 CJTF-Iraq에서 CJTF-7으로 개칭 : 5월 1일부)를 바그다드에 위치시키고 지역별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등 이라크 재건 및 과도정부 수립을 지원하는 임무였다. 세부과업은 후세인 추종 세력 및 잔적소탕, 대량 살상무기 확인 및 확보, 오일 기간산업 복구지원, 이라크 군 대개편을 위해 이라크 군부 인사들과 접촉유지, 향후 이라크군 재건을 위해 유기된 장비, 무기, 탄약 등 확보, 시리아, 이란 등으로 연결되는 주요 국경선 통제, 후세인 정권의 주요 지도부 체포, 이라크 지방 경찰들과의 협조를 통한 법질서 유지, 미 국제 개발처(USAID) 및 재난방지 대응팀(DART) 등에 대한 지원, 지뢰제거, 폭발물 처리, NBC오염 지역에 대한 조치 지원, 긴급 인도주의 지원 제공, 임시정부 수립 이전까지 지방정부에 대한 군정체제 유지, 걸프전시 실종된 쿠웨이트인들에 대한 조사 지원, 잔존하고 있는 특수공화국 수비대, 정보부대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와해, 이라크 인접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시도 차단 등 안정화작전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 Ⅵ. 結果 및 敎訓

### 1. 이라크 전쟁의 특성(特性)

-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지 '05년 3월 20일부로 2주년이 지났고 6월 28일부로 이라크 임시정부가 미 군정부로부터 주권을 이양 받은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 저항세력이 앞으로 수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전망은 2003년 3월 이라크전 개전(開戰) 이후 미군 사망자가 1,725명(부상자 : 13,074명), 이라크 군·경 사망자는 2,418명, 민간인 희생자는 12,700~23,000명(5. 31. 현재), 대형 폭탄테러는 295건(자살폭탄테러 171건), 외국인 인질 203명(36명 피살, 92명 석방, 49명 현재 억류 등), 이라크 저항세력 16,000명, 외국인 테러범 1,000명, 다국적군 158,000명(미군 135,000명), 이라크 보안군 272,566명(경찰 142,190명, 방위군 61,904명)<sup>15)</sup>이 활동중이다.

미국 합참 의장인 피터 페이스 장군은 “이라크에서 활약중인 연합군과 방위군이 지능적으로 변한 적들과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평균 50~60건의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의 목표와 방법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서, 이라크 반군들의 공격목표가 연합군에서 이라크 경찰로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럼스펠드 장관은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라크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라크는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sup>16)</sup>고 말했다.

- 비선형(非線型) 전쟁으로서 「효과 중심작전」 원리를 실험하였다. 미군은 스텔스 기술과 정밀 유도무기체계를 사용한 정밀타격이 가능해짐으로써 개전초기 24시간 내내 이라크 전역의 152개의 전략적·작전적·전술적 표적들을 타격하였고 이는 2차 세계대전시(42~43개) 미군이 공격했던 표적수를 상회하며 또한 원하는 표적(지휘시설을 포함한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함으로써 전쟁 지휘부를 마비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전쟁을 단기간에 종결시킴으로써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피해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한 무기체계의 발달과 공격개념 변화로 기존의 「목표중심 사고」가 「효과중심 사고」로 전환되어, 이러한 배경하에서 효과 중심작전(EBO : Effects-Based Operation)이 발전되었다.

주 15)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집계·추정(2005. 6. 23. 현재), 조선일보(2005. 6. 28)

\* 2003. 4. 16. 기준 사망자 미국/연합국 154명, 이라크 3,570명(민간인 1,250명 포함).

\* 걸프전시 사망자 다국적군 138명, 이라크 10만명(민간인 포함) ; 합참 이라크전쟁종합 분석.

16) Rumsfeld, Pace Speak About Future in Iraq, 미 국방부 2005. 6. 14.

- 장거리 정밀타격으로 비살상전(Clean War)이 보편화 되었는데 연합군이 전략적 핵심 표적과 군사표적을 선별하여 정밀 타격 및 파괴함으로써 이라크군 및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한 가운데 전승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이테크 및 디지털화된 무기체계의 정밀성 혁명으로 공산오차가 Zero화에 근접되어 이라크전시 순항미사일은 1,000km 이상 이격된 목표물을 공산오차 10피트(3m) 이내로 정확하게 명중하여 파괴하였다.
- 전장공간이 우주·사이버 영역까지 확장되고 중첩으로 사용하였다. 인공위성은 전장 정찰, 감시, 통신, Data송신 등의 정보기반전의 핵심 장비로서 이들 자산을 감시 및 통제하기 위한 우주작전을 수행하여 기반전력(광학 및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항공 우주 무기체계는 실시간 전장 확인 가능한 위성과 전략 및 전술 정찰기, 무인기, IT Network, 통신의 결합으로 완벽에 가까운 C4ISR을 지원하였다. 미군은 항공 우주전력을 실시간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연합 항공 우주작전 본부를 무기체계로 지정하고 2003년 중 전력화를 실시하였고 2010년 완전능력 구비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다양한 첨단 공중타격 무기체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표적에 대해 효과적인 정밀 타격을 수행하였다. F-117 스텔스기는 공중 급유기의 부족으로 개전 초 3일 동안 방호가 잘 되어 있는 표적에만 집중 사용하였는데 이중 개전일 야간 임무의 2/3를 수행하였다. 항공기 발사 순항미사일은 153발, 함정 발사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802발(BGM-109 TLAM Tomahawk)<sup>17)</sup>을 발사하였고 함정발사 토마호크 미사일의 실패율을 2%로 걸프전시 5%(288발)에 비해 반감되었다. 토마호크의 정밀도와 사정거리가 향상되었으나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의 경우 탄두 중량화와 표적 침투능력과 관련하여 여전히 제한사항이 내재되어 있다. UAV는 장기간 체공 중에 정보를 수집하고 500lbs 소형폭탄으로 민간 지역 핵심표적을 공격하였고 A-10/Harrier/AH-1W기는 저고도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으며, GBU-27/GBU-28(Bunker Buster) 폭탄은 지하시설 파괴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B-1, B-2, B-52 폭격기는 스텔스 침투 능력과 1회 작전시 다수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등에 의해 가치가 입증되었다. B-2 폭격기는 2,000파운드 JDAM(Joint Direct Attack Munition)<sup>18)</sup>을 16기 또는 유도폭탄을 70,500lbs까지 탑재하고 B-1B 폭격기는 1회 24톤의 무기를 탑재 가능하나 이라크전시 총 쏘티의 2%만을 운용하였으며 대부분이 JDAM 투하에 운용되었고, 4월 27일 B-1폭격기가 일일 6~7쏘티 운용되었고 총 2,100개 이상의 폭탄을 투하하였다.(출처 : LA타임지)

주 17) 잠수함/수상함(SLCM)에서 발사하여 아음속으로 적 방공망을 저공은밀 침투, 지상 전략 표적 정밀공격.

18) 재래식 폭탄에 GPS/INS 유도장치를 장착하여 정밀공격이 가능한 유도폭탄.

- 비선행전 및 분산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 연합군은 이라크전 전 기간 및 전 지역에서 동시 전투를 수행하면서 정밀유도 무기체계로 전 전장의 전략적 표적에 대해 동시 및 미동시에 타격하고 특수작전 부대를 전 전장에 투입하였고 비선행전 하에서 주요 거점이나 전략적 중심 등에 대해 선별적 공격을 실시하여 전장 밀도를 현저하게 축소하였다.

## 2. 미국의 이라크 전쟁 승인(勝因)

- 미국 전쟁지도부의 명확한 전쟁목적과 전쟁수행 방법 설정으로 군사작전의 지연과 혼란을 최소화하였고 첨단 정보, 기술전력의 압도적인 우위로 비대칭 작전과 속도, 지식, 정밀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쟁개념에 의해 충격, 공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CIA 요원과 특수부대 등을 동원한 은밀 공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고 전쟁발발 이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라크에 대한 지속적인 공습작전으로 이라크의 군사능력이 상당부분 와해되어 최초 작전계획상의 가정에 대한 현실적 오류 발생시, 융통성있고 유연하게 대응을 하였다.
- 이라크 전쟁기간 중 이라크군의 방공무기 대응으로서 이라크군은 지난 12년 동안 미국군의 적 방공제압(SEAD) 운용기술에 대해 많은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는 항공기 탐지를 위한 레이더를 작동시 레이더 전파탐지에 의해 즉시 레이더 타격 미사일이 발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번 전쟁간 거의 레이더를 작동시키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라크군은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대공화기를 레이더 없이 육안 관측에 의해 발사<sup>19)</sup>하였으며 수천기의 대공화기를 주거지역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연합군의 항공기가 이라크 대공화기 사거리 밖의 약 10,000피트 상공에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철저한 전쟁연습 및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하였다. 합동 전투실험(Millennium Challenge '2002')은 '02. 7. 24~8. 15(3주간)까지 캘리포니아 및 네바다주 일대의 9개 실전훈련장 및 17개 모의 훈련센터에서 이라크 환경에 부합된 신속 결정적 작전(RDO) 및 효과중심 작전(EBO) 개념을 최종 확정하고 작전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및 조건을 검토하였으며 협동작전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유사한 경험을 습득(FTX : 20%, CPX 80%)하였다. 그리고 현지 적응능력(Desert Spring) 훈련은 전차, 장갑차를 동원한 미군 12,000여명이 이라크 국경일대(쿠웨이트 북부 사막지역)

주 19) 지대공 레이더 작동 : 약 436회, 지대공미사일/로켓 발사 : 약 1,660회, AAA : 약 1,224회, 지대지 미사일 발사 : 19회.

에서 주·야간 기동훈련 및 장애물 극복훈련, 수색 및 시가지전투 훈련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쿠르드족 등 반체제인사 5,000여명이 미 본토에서 전쟁간 동맹군 전투요원 안내 및 통역 등 지원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투훈련을 하였고, 미 종군기자 600여명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 집체훈련을 실시하여 기자들의 전장 적응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부시 행정부의 언론 정책에 적극적인 동조를 유도하였다.

### 3. 이라크의 패인(敗因)

1990년 8월 UN의 대이라크 제재가 개시된 이후 시리아를 통한 일부 전투장비의 도입 외에는 일체의 주요장비 생산 및 도입이 불가능하는 등 유엔 및 주변 이슬람권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전쟁지원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였다. 후세인은 미국의 전쟁의지 및 군사능력을 과소평가했는데 이라크 전쟁 승인을 허용하는 UN 결의안을 미국이 상정기간 동안과 동 결의안이 부결시 국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국이 침공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다. 또한 유엔을 통한 연합군의 공격 방지에만 주력하고 실질적인 전쟁 대비는 미흡한바 실제 전투가 이루어진 당시에도 주력인 지상군 다수를 바그다드 동부의 이란 국경선 일대와 북부 쿠르드족 거주지역과 남부지역 시아파 거주지역 일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미국의 첨단 정보기술 전력을 이용한 작전에 대해 실질적인 비대칭전 위주의 대비보다는 극단적 이념에 입각한 자살공격, 인간방패, 게릴라전에 의존을 하였고 연합군의 정밀 폭격에 의해 이라크군의 기동제한과 지휘통제체계 마비 등 핵심 군사력이 조기에 와해되어 전투의지가 상실되었다. 바그다드의 조기함락은 이라크군의 잔존저항 세력에 큰 허탈감과 패배감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계속적인 저항보다는 차후 대책에 관심이 전환되어 있었고 후세인의 강권 압제적 통치 스타일은 정보 유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연합군이 바그다드까지 진입하는 상황에서도 이라크 지도부는 전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언론 차단 현상이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 4. 군사적 교훈(敎訓)

- 먼저 전쟁기획 및 작전계획 분야로서 미국 전쟁기획의 우수성·적응성·융통성을 바탕으로 최초 북부 전선에 의존하였던 작전계획을 신속히 변경하여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해병대는 이라크군의 집결지와 도시를 우회하여 서측 축선을 따라 신속하게 바그다드에 접근함으로써 이라크군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지형 이점의 사용을 박탈하였다. 미군과 연합군의 높은 훈련 및 전투준비태세는 손실률을 낮추고 20일 이상의 지속적인 작전 수행을 보장하였다. 미 항모에서 타격

임무를 수행하였던 조종사의 약 70%가 전투경험을 보유했듯이 현역 대부분은 전투경험 보유자로 구성되어 고도의 전투력을 발휘하였고 또한 미군의 휴식과 부대재편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토록 군수지원 능력이 효율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미군은 무선식별(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태그를 사용하여 군수상황을 실시간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신속히 소요에 응했으나, 중대단위급 RFID의 미보유와 트럭 부족으로 원거리에서 적시적소의 군수지원이 부진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이라크 전쟁에서의 큰 변화는 미군의 보급 내지 병참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리 변했다는 것이다. 미군은 백발백중의 정밀 폭탄을 전체 폭탄의 80% 이상 사용하였다. 이것은 폭탄을 대량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므로 보급이 적어도 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방대한 양의 폭탄과 공격기, 연료가 불필요하며 대규모의 보급 작전도 필요 없으므로 전투부대, 공병부대, 로켓 부대, 후방지원 부대도 축소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C-17수송기라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고성능 수송기를 대량 투입한 것이다. 이 수송기는 극히 짧은 시간(30분)내에 완전무장한 1개 중대와 탱크 2대를 태우고 최전선으로 수송할 수가 있다. 미군이 이 수송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C-17수송기의 투입은 미군 보급체제의 능력화를 더욱 촉진하게 될 것이다.

- 지상 작전 분야는 미국 지상부대의 신속한 기동속도 유지는 이라크군 반응시간을 박탈하고 중심을 무력화시켜 「적의 기도를 말살한다」는 교리의 효과성을 증명하였다. 지상군은 재공급을 위해 정지하는 시간 이외에는 24시간을 지속적으로 전진하였고 불명확한 적정하에서 차량행군간 정지는 적에게 고정표적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 행렬시에는 선두, 중간, 후미에 각각 전차를 위치하여 좌·우측방 방호로 중단 없는 기동보장 대책이 요구되었고 간편식 조립교 구축 등 적극적으로 공병지원으로 기동로를 보장할 수 있으므로 공병의 기동화 및 경량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연합군은 시가전 수행시 넓은 지역을 점령하는 전통적 방법보다 권력 중심부와 핵심시설 장악에 중심을 둔 새로운 방식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만약 적이 강력한 도시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경우에 새로운 시가전 수행방식이 유효할 것 인가는 불확실하다. 이라크군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민간버스나 트럭을 탄 채 공격을 실시하였고, 미군의 대응사격에 따라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였다. 「민간인복장+전투화 착용 또는 맨발」 인원을 적 전투원으로 간주하는 식별방법이 유효하였다.
-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분야로서 연합군은 적에 대한 압도적인 지식정보의 이점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미군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12년 이상 이라크를 연구하고 표적을 확인하였다. 연합군은 WMD 개발 증거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

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은 미·영이 이라크의 WMD 은닉 장소를 미발견했거나 이라크 능력을 과장했음을 시사하며 WMD 탐지 및 보호장비의 문제점이 다수 노출됨에 따라 신뢰성 있는 화생작용제 및 야전용 보호장비의 개발이 긴요하였고 미국은 WMD 탐색을 위한 장비와 훈련 수준이 전반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WMD를 정치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어 명확한 전략이 부재하였다. 그리고 이라크가 추구했던 비대칭 전술이 연합군에 기습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장차 잠재적 적 대국들도 다양한 새로운 비대칭 전술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5. 전쟁원칙(戰爭原則)

- 이라크 자유작전의 교훈을 분석함에 있어서 전쟁의 원칙을 적용하여 분석하여 볼 때 명확하게 전쟁원칙과 맞아 떨어지는 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쟁의 교훈을 분석함에 있어 그렇듯이 전쟁을 주도한 국가의 작전형태를 전쟁원칙에 비교해 본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와 패배를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목표란 부대의 가용 전투력을 운용하여 확보 또는 달성해야 할 대상으로서 부대는 목표달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전쟁에서의 궁극적인 군사목표는 적의 군대를 격멸하고 전투의지를 파괴하는 것이며, 각급 제대의 군사작전 목표는 이러한 궁극적인 군사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sup>20)</sup> 미국은 작전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는데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제시한 8대 작전목표<sup>21)</sup> 중 첫째가 「후세인」 정권 제거(ending the regime of Saddam Hussein) 임무를 부여하여 후세인이 예상하지 못한 기동로와 이라크군의 강력한 방어진지를 우회하여 비선형작전으로 다방면에서 공격과 기동을 하면서 가장 신속하게 후세인이 거처하고 있는 바그다드를 향해 진군하여 목표를 조기에 함락하여 이라크 잔존세력에 큰 허탈감과 패배감을 주었다.
- 정보는 적 부대 또는 작전지역에 관한 모든 가용한 첩보를 수집, 평가, 분석, 통합 및 해석한 자료로서, 모든 작전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전제가 되는 요소로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다. 후세인은 전쟁을 하기전에 벌써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후세인은 이라크 전쟁 승인을 허용하는 UN 결의안을 미국이 상정기간 동안, 그리고 동 결의안이 부결시 국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국이 침공을 하지 못할

주 20) 육군본부, 작전요무령, 1996. 7. 31. pp.1~11.

21) 합동참모본부 : 이라크 전쟁 종합분석, 2003. 10. 10. p.37.



것으로 판단하였고, 터키의 미군 기지사용 거부로 보병 제4사단이 지중해에 머물러 있을 때까지는 전쟁을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전쟁을 수행하더라도 종전의 전쟁 수행 방식으로 선(先) 대규모 공중공격, 후(後) 지상군을 투입할 것으로 판단하였다(4월 15일 「럼스펠드」 국방부 브리핑). 반면에 미국은 전쟁발발 2개월 전부터 CIA산하 특수작전단(SOG) 요원을 유럽 경유하여 비즈니스맨으로 가장하여 주요 전략목표 지점에 잠입(바그다드, 모술, 바스라 등)시켜 이라크 전 지역에 연락망을 구축하였다. 특히 이들은 C41시설 등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하였고, 북부 쿠르드족과 연계한 민병대를 조직하였고, 개전시 주요시설과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요충지 및 비행장 등 점령 가능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 사기는 전투력의 무형적 요소이며 부대 임무수행에 관한 각 개인이나 집단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로서 의욕, 동기유발, 자신감 등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다. 미국은 전쟁이전 이라크 전쟁에 대하여 부정적, 긍정적 견해가 혼재하였으나 전쟁이 발발하자 미(美) 언론과 국민은 전폭적 지지<sup>22)</sup>를 하였다. 미 국민의 지지는 군의 사기를 높여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후세인 정권은 근본적으로 대규모의 민병대를 지원하는 국민의 지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과오를 범했으며,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민병대가 정권을 지지하지도 않았으며 싸우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후세인의 강권 압제적 통치의 독재정치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싫증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못하여 굶주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은 신발 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있는 등 국민들과 군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있는 실정이었으니 국가 총력전을 수행하는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 6. 결 론

- 「손자」는 “故兵聞拙速，未觀巧之久也，夫兵久而國利者，未之有也” 「전쟁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속전속결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교묘한 술책으로 지구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보지 못했다. 대저 전쟁을 오래 끌어 국가에 이로운 것은 이제까지 없었다」<sup>23)</sup>라고 하였는데 이는 전쟁을 수행함에는 많은 전비(戰費)가 들고 국력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전쟁은 신속히 결정을 짓는 단기결전을 주장하였다. 지금까

주 22) 부시 대통령 지지도 : 전쟁개시 이전 50% 내·외, 전쟁개시후 70% 유지.

23) 노병천, 도해 손자병법, 서울 : 한원, 1990. 10. 30. p.60.

지 전례를 살펴볼 때 단기결전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통상의 경우 그것이 성공되었을 때에는 승리를 획득하고 실패한 경우에는 마침내 파멸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장래에 있어서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국·내외의 여건 때문에 단기전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 기간을 살펴보면 코소보전쟁은 78일간, 아프간(Afghanistan, 항구적 자유작전)전쟁은 61일간, 걸프전쟁(지상 작전은 100시간) 및 이라크 전쟁(이라크 자유작전)은 43일간 등 단기작전으로 종결되었다. 현대전쟁에서 단기결전을 강요하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sup>24)</sup> 첫째는 국제정치적 여건이다. 어떠한 지역에서의 전쟁행위도 통상 강대국들의 이해가 개입되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둘째는 극단적인 소모전을 강요하는 오늘날의 전쟁양상은 그 자체이다. 적어도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국가도 장기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현대전쟁의 소모성은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2001. 9. 11. 테러 뒤 중동 지역에서 생겨난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다. 그 변화의 흐름을 보면,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자들이 말하는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한 각국의 냉정한 계산이 읽혀진다.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 국가”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나라들은 미국의 테러전쟁에 협력하여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왔다. 미국은 이슬람 국가들과 미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는 이스라엘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이들 이슬람 국가의 속내를 의심하면서 그들이 제공하는 알카에다 정보를 받아 활용해 왔다.<sup>25)</sup> 21세기에 들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두 번째로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였다. 이 전쟁에서 나타난 과거 선형, 밀집대형 형태의 작전을 비선형, 중심지향의 새로운 작전 형태의 전쟁에 대비하면서 정밀타격무기와 신형첨단무기(C4ISR)를 결합한 복합체계를 장기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이용한 작전능력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 2005. 6. 28.부로 이라크 임시정부가 미 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은 지 1년이 됐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 저항세력이 앞으로도 수년 이상 버틸 수 있다고 경고했다.<sup>26)</sup> 이같은 전망은 2003년 3월 이라크전 개전 이후 미군 사망자가 1,700여명을 넘어서고 저항세력의 유혈공격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라크 상황이 상당기간 유동적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주 24) 김희상, 중동전쟁, 서울 : 광진, 1998, 8. 30, p.948.

25) 김재명(뉴욕 분쟁지역 전문기자), 국방저널, 서울 : 국방홍보원, 2004, 11.

26)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 2005. 6. 26, 미국 방송국들과 인터뷰에서.

## ※ 後 記

우리나라는 현재 북한과 동족상잔의 전쟁이었던 6·25전쟁이 휴전협정으로 정전(停戰)되어 있는 상태이며, 지금도 155마일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중무장(重武裝)한 병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역사(歷史) 인식의 중요성과 6·25전쟁이 잊혀져 가고 있는 신세대에게 평화시에 전쟁 대비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일깨워 주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국방부 산하의 모든 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군인을 양성하고, 간부들에 대한 보수교육 책임이 있는 육·해·공군 본부에서는 각 교육 기관에 전쟁사과목은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전쟁사 교육시간 확대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그나마 합동참모본부에서 현대전쟁에 대한 종합 분석을 하여 전파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자료를 참고로 하여 간부나 병사들 교육에 알맞도록 편집하고 있는 기관이 지극히 부족함에 필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육군본부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육군전사 연구소(陸軍戰史 研究所)를 2006년부터 설립하여 육군산하 교육기관 및 부대에 필요한 전사 교육자료 지원과 간부를 위한 전사교육 그리고 미래전에 대비한 전사를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아무쪼록 앞으로 전사를 연구하는 훌륭한 장교들이 많이 나타나서 서구 유럽의 무수한 전쟁사 전문가들과 같은 전략가(戰略家)들이 탄생되길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1. 중앙일보. 『브루킹스 연구소가 본 이라크전』. 2005. 3. 17. 17면.
2. 합동참모본부. 『이라크 전쟁 종합분석』. 2003. 10. 10.
3. 조선일보.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집계, 추정』. 2005. 6. 23.
4. 미 국방부. Rumsfeld, 『Pace Speak About Future in Iraq』. 2005. 6. 14.
5. 육군본부. 『작전요무령』. 1996. pp.1~11.
6. 김희상. 『중동전쟁』. 서울 : 전광, 1998. p.948.
7. 국방홍보원. 『국방저널』. 2004. 11.
8. 김강녕. 『한반도 군사안보론』 제2판. 서울 : 대왕사, 1999.
9. 신성택. “이라크 보유 대량살상무기 실태”. 김재두·김상범 편저. 『이라크 전쟁 : 분석과 전망』. 서울 : 한국 국방연구원, 2002.
10. 노병천. 『도해 손자병법』. 서울 : 한원, 1990. 10. 30. p.60.
11. 합동참모본부. 『아프간 전쟁 종합분석』. 2002. 7. 10.
12. 외교통상부. 『이라크 개황』. 2004. 7.
13. CIA([http : //www.cia.gov](http://www.cia.gov)). 『Terrorism FAQs. Geographical. Information』.
14. 美 국방성([http : //www.dod.gov/i.html#iraq](http://www.dod.gov/i.html#iraq)).
15. 美 국방성([http : //www.defenselink.mil](http://www.defenselink.mil)).
16. 美 육군([http : //www.army.mil/operations/oif/index.html](http://www.army.mil/operations/oif/index.html)).